

박현주 글로벌 전략 결실... 미래에셋 연금자산 80조 돌파

(회장)

올해만 43만명 신규 연금 고객 유입
자산배분 전략·해외 확대 기조 성과
모바일 앱 'M-STOCK' 만족도 높아

연금이 '저축'에서 '투자'로 빠르게 전환되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이 연금자산 80조원 고지를 넘어섰다. 국내 금융투자 업계 최초 기록으로, 투자형 연금 수요 확대 속에 자산배분 전략과 연금 관리 역량이 고객 유입으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연금자산(납입금액+ 운용손익)이 지난 15일 기준 80조원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금 자산은 퇴직연금 51조5300억원, 개인연금 28조5800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전 부문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대표 연금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했다.

연금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려는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미래에셋증권을 찾는 고객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만 43만명의 연금 고객이 새롭게 가입했다.

올해 1분기 퇴직연금 적립금 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으로 유입된 퇴직연금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 원본 출처 미래에셋증권

적립금은 4조3426억원으로 전체 시장 유입액 11조9000억원의 약 36%를 차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 증가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DC(확정기여형) 적립금 전 업권 1위 달성을 기념해 전체 DC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3만4002명이 응답한 가운데 56%는 미래에셋증권을 선택한 이유로 '연금 전문 금융기관으로서의 브랜드 신뢰도'를 꼽았다. 이어 주변의 긍정적 추천(19%), 관리 편의성(17%) 순으로 나타났다.

연금 관리에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로는 '편리한 모바일 앱 서비스'가 3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은 M-STOCK을 통해 고객이 스스로 연금 자산을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도 27%의 응답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연금 투자 경험이 부족한 고객도 손쉽게 자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MP구독 서비스와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시장 변화에 맞춘 자산배분 전략을 통

해 장기 투자 관리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브랜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9%가 미래에셋증권을 '앞서가는 수익률과 차별화된 운용 역량을 갖춘 투자 전문가'로 평가했다. 37%는 '신뢰와 안심을 주는 1위 사업자'라고 답했다.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연금 자산관리 역량이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는 상품 상담뿐 아니라 질세, 건강보험료, 은퇴 이후 현금흐름 관리 등 노후 설계 전반에 대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금자산관리센터를 본부로 확대하고 로보자산관리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도 시행했다.

연금 자산 확대 힘입어 미래에셋증권의 전체 고객자산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고객자산(AUM)은 지난 5월 말 기준 8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자산 약 718조원, 해외 자산 약 85조원이다.

이는 미래에셋그룹의 GSO(글로벌전략 책임자)인 박현주 회장이 주도해 온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과 해외시장 확대 기조가 고객자산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미래에셋은 현재 전 세계 21개 지역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주요 해외법인들은 연이어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홍콩 시장 글로벌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 구축, 미국 증권사 인수 추진 등 글로벌 사업 확장도 이어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 우량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자산배분 전략을 지속해왔다. 단기 성과보다 연금 자산의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장기 수익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업계 최대 규모의 연금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업계 유일의 4년 연속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최근에는 연금자산관리센터를 본부로 확대하고 로보자산관리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연금 적립금 80조원 돌파는 고객이 미래에셋증권을 믿고 선택해준 결과"라며 "가입자의 필요를 먼저 읽고 고객의 노후와 미래를 책임지는 연금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韓증시, 내일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분수령'

韓 투자상품 가용성 평가 상향 조정
MSCI "시장 접근성 아직 미해결"
내년 편입 발표, 2028년 편입 기대

한국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첫 관문에 다시 선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방과 영문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이어지면서 관찰대상국 등재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MSCI가 외환시장 자유화와 결제·정보 접근성 등 핵심 항목에 대해 여전히 '개선 필요' 평가를 유지하면서 실제 등재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SCI는 한국시간 오는 24일 연례 시장 재분류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이 선진국지수 편입 후보국인 관찰대상국(위차리스트)에 오르면 이르면 2027년 편입 발표, 2028년 실제 편입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은 2008년 관찰대상국에 올랐지만 외국인 투자 접근성 부족 등을 이유로 선진국지수 편입이 불

발됐고,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됐다.

올해 기대감이 커진 배경은 정부의 시장 접근성 개선 작업이다. 금융당국은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외국인 투자등록제 개선, 영문공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MSCI도 최근 공개한 글로벌 시장 접근성 리뷰에서 한국 증시의 '투자상품 가용성' 항목을 기존 '개선 필요(-)'에서 '개선 가능(+)'으로 상향했다. 한국 지수와 연계된 파생상품이 국제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글로벌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 넓어졌다는 평가다.

증권가에서는 관찰대상국 등재 자체가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규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39가지 MSCI 로드맵 주요 과제 캘린더를 발표하고 상반기까지 71.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국이 선진국 위차리스트에 등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 유입 기대도 나온다. 김 연구원은 올해 관찰대상국 등재 시 밸류에이션 상승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 규모가 약 292억달러(약 4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지수 편입에 따른 구조적 효과에도 주목한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편입 이후 자금 유출입과 지수 변동성이 낮아지고 기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선물을 중국과 신흥시장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활용하던 비중도 감소할 것"이라며 "선진국 편입에 따른 구조적 장점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실제 관찰대상국 등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MSCI는 한국의 개혁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인 시장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해 한국은 18개 시장 접근성 평가 항목 가운데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투자자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등록 및 계좌 개설, 정보 흐름, 청산 및 결제, 증권 이동성 등 5개 항목에서 여전히 '개선 필요' 평가를 받았다.

가장 큰 변수는 외환시장이다. MSCI는 한국이 24시간 역외 외환거래와 2027년 역외 원화 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완전히 가동 가능한 역외 원화시장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역외 외환시장에도 제약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영문공시와 투자자 등록 체계도 과제로 남았다. MSCI는 기업 정보가 영어로 항상 원활하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2027

년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영문공시가 확대된 이후 제도 실효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에서 법 인식별기호(LEI)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두 제도가 병존해 옴니버스 계좌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MSCI는 한국의 자본시장 개혁 노력과 추가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근본적인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봤다"며 "제도 개혁 자체보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반도체 투자 열풍... 삼성운용, 글로벌반도체펀드 1조 달성

설정 약 5년 만에 성과

삼성자산운용은 '삼성 글로벌반도체펀드'가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 기준 이 펀드의 순자산은 1조599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9월 최초 설정한 이후 약 4년 9개월이다.

이 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A클래스 기준 헤지(H)형 200.4%, 언헤지(UH)형 229.7%에 달한다.

같은 기간 나스닥100 지수 상승률(40.0%)을 5배 이상, 같은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삼성자산운용은 '삼성 글로벌반도체펀드'가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173.1%)보다 27.3%포인트 높은 성과다. 이 펀드는 AI(인공지능) 산업의 직접적

인 수혜가 기대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투자해 반도체 매출액 기준 글로벌 상위 20개 기업을 집중적으로 담는다.

이를 통해 미국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한국, 대만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들에 분산 투자한다.

서민웅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에이전틱 AI에서 피지컬 AI로 이어지는 AI 투자 사이클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혜 산업이 바로 반도체"라며 "메모리를 비롯한 반도체의 전반적인 초과 수요 업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거래소, 내달 코스닥 30주년 기념식 연다

기업 IR·세미나도 진행

한국거래소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코스닥 시장 개설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1996년 7월 1일 개장한 코스닥의 30주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첨단·혁신산업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도 진행된다.

기념식 직후에는 한국IR협의회·코스닥 협회와 함께 코스닥 상장사 IR과 관련 전문가 강연, 세미나를 진행하는 '코스닥커넥트(CONNECT) 2026'이 열린다.

이 자리에는 코스닥 상장사 100여개와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탈(VC), 증권사 등이 참석하며, 제약·바이오와 로보틱스, 뷰티 등 8개 산업 부문 전문가 강연과 VC 투자 트렌드 설명, 코스닥 상장사 CEO 대담 등이 예정돼 있다. 대담에는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회장과 실리콘투 김성운 대표, 토모큐브 박용근 대표가 나선다.

이 코스닥 커넥트는 사흘간 열리며, 2~3일은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다.

기업 IR에는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HPSP, 피에스케이, 로보티즈, 파마리서치 등이 나서며, 코넥스 상장사 이엠티, 노브메타파마, 메디씨이 등 다수 업체도 참가한다. /신하은 기자 godhe@